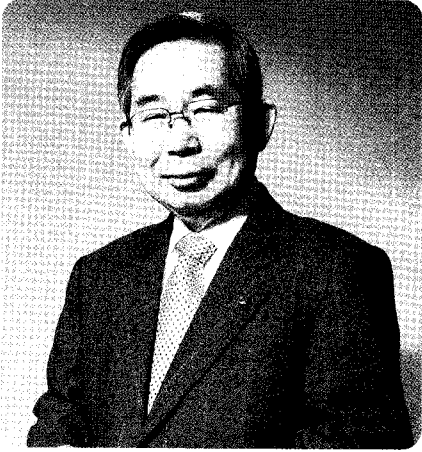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 서울대 의과대학 및 대학원(의학박사)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및 진단검사의학교실 주임교수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장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회장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회장
-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서훈 : 옥조근정 훈장

역사적으로 인류를 위협해온 대표적인 질환들은 페스트, 콜레라, 인플루엔자, 에이즈, 결핵, 나병, 말라리아 등 감염질환이었다. 그러나 2004년 WHO가 집계한 회원 국가의 10대 사망원인 1위는 심혈관질환이고 그 다음이 뇌혈관질환, 하부호흡기감염(폐렴, 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설사, 에이즈, 결핵, 호흡기(폐)암, 자동차사고, 미숙아 등이다. 사망원인은 각 국가의 경제력빈부에 따라 다르다.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폐렴, 심혈관질환, 설사, 에이즈, 뇌혈관질환 등이 주요 사망원인인데 비하여 부자 나라들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암, 폐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등에 선두를 내주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인플루엔자,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질환이 더 위협적이다. WHO의 2008년 통계로는 말라리아 환자 2억 4,300만 명이 발생했고 그 중 86만 3,000명이 사망했다. 에이즈는 270만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했고 200만 명이 사망했다. 아직도 인구 10만 명당 140명이 결핵환자이고 콜레라 19만 명, 나병 21만 명, 기생충 질환인 사상충증 환자도 6억 9,500만 명이 새로 진단되었다. 인류에 큰 재앙이 될 듯하던 광우병은 다행히 사라지고 있고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에볼라바이러스는 급성에다 치사율이 높지만 전염 확산 범위가 좁고 발생률이 낮아 다행이다. 그 대신 전염성이 강하지만 치사율이 낮은 인플루엔자가 극성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감염질환은 백신 개발 등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면에서 덜 위협적이다.

현대에 와서 감염 질환을 대신하여 인류를 고통스럽게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암, 당뇨병, 고혈압 등 심장 및 뇌혈관질환, 알레르기질환, 정신질환, 운동장애 등이다. 우리나라 2008년 사망원인 순위는 남자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간 질환이고, 여자는 암, 뇌혈관질

疾病

환, 심장질환, 당뇨병, 자살이다.

이들 질환 중에서 암이나 심장 뇌질환 등은 주요 사망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자살이 20~39세 사이에서 사망원인 1위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이고 이것도 질병이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정신질환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하였다. 1998년 10만 명당 18.4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극심한 사회 변혁을 겪고 있는 동구권 나라들을 제외하면 최상위급에 속한다. 약물과 알코올 중독도 정신질환의 범주에 넣는다면 정신질환은 어느 질환보다도 인류에게 위협적이다. 담배 피우는 것도 중독 질환이고 그 독성은 암 발생 등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 급에 속하기 때문에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고 치료하여야 한다면 정신질환 문제는 인류 건강 유지의 가장 큰 장애이다.

“20~39세 사이에서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자살도 질병이라고 의문을 갖겠지만 분명히 자살은 정신과 치료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감염이나 암 등 질환과 성격은 다르지만

영양 결핍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WHO의 2010년 통계로는 5세 어린이 1억 8,600만 명이 영양 결핍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 영양 결핍의 대부분은 빈곤 때문이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도 올 수 있다.

이상의 질환 퇴치에 성공을 거둔다면 그 다음 문제가 노화이다. 인류는 한계 수명을 가진 생물이고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생명을 확실하게 위협하는 것은 수명, 다른 말로 하면 노화이다. 그러나 아직 의학에서 조기 노화를 특징으로 하는 특정 질환 이외에는 질병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의학 발달에 따라 어느 때인가는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아직 의학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노화를 자연 현상 즉, 신의 영역에서 의학과 의료 행위의 대상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즉 노화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취급하여 신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계 수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시대에 우리 자손들은 살게 될 것이다. ㉞